

서평 : 『朝鮮詩歌史綱』의 학술사적 의의를 다시 묻다

류준필*

1

한국문학연구사에서 학술적 고전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을 거론할 수 있겠다. 특정한 저작이 등장한 이후로 다양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였다는 학술적 영향력이 그 하나라면, 풍부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잠재성이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이 두 기준을 조운제의 『朝鮮詩歌史綱』(이하 『사강』)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논자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에 『사강』을 포함시키는 편이 온당해 보인다. 『사강』은 다소 불운한 고전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강』의 간행 시점에서 그 불운의 일차적 원인을 찾게 된다. 한국문학연구사에서 『사강』은 최초로 서술된 시가사 저술이다. 1937년에 간행되었다.¹⁾ 조운제 개인의 연구 이력에서 볼 때 꼭 늦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강』보다 훨씬 앞서 적잖은 저술들이 간행된 상태였다. 안확의 『조선문학사』(1922)는 차치하더라도,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인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1931)와 『조선소설사』(1933)나 김재철의 『조선연극사』(1933) 등이 30년대 초반에 이미 등장하였다. 아울러 그 당시에 김태준을 필두로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젊은 연구자들이 조선의 민요와 가요 연구에 매진하던 터였다. 따라서 1937년의 『사강』 출간은 활발한 연구 흐름에서 다소 뒤쳐진 듯한 인상을 주기 쉽다. 선구성의 의의가 강하게 부각되기 어렵다.²⁾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조운제 자신에게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조운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1) 조운제, 『조선시가사강』, 동광당서점, 1937.

2) 『조선시가사강』의 저자 서문에 따르면 실제 집필은 1932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제 스스로가 자기 학문이 『국문학사』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문학사』의 문학사 서술이 실증주의적 편향이 뚜렷했던 이전 시기의 자기 연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강』은 ‘실증주의—민족사관’이라는 대립 구도 속에서 평가받게 되었고 『국문학사』의 의의가 부각될수록 그 위상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엔 그 나름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이 작용하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朝鮮詩歌史綱』의 학술사적 의의를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근본적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강』에는 시가사 혹은 문학사 체계 정립에 필수적인 요건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가 겨냥하는 바는 『사강』과 『국문학사』 사이에 놓인 위계성의 관행을 재고하자는 데 있다. 덧붙여 희망하는 효과가 있다면,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또는 ‘문학사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인식틀은 무엇인가’와 같은, ‘철지난’ 질문들이 이어지는 것이다.³⁾

2

조운제에게 시가사란 “크게 말하면 과거 우리 생활 일부의 변천을 편록한 역사라고도 하겠고, 적게 말하면 운율적 생활의 일부 문학사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민족의 생활을 기록한 역사의 일종인바, 특히 “운율적 생활”을 근거로 한 역사가 시가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운율적”이라는 용어야말로 시가의 시가다움을 규정하는 말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운제는 『사강』의 시대구분을 다음처럼 제시하였다.

3) 이 글의 성격상 기존 연구의 인용은 일체 생략한다. 참고문헌의 형식으로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4) 조운제, 앞의 책, 2쪽. 이하 『사강』의 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는 본문에 면수 표시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용시 가급적 한글로 바꾸고 오늘날의 방식으로 띄어쓰기를 하도록 한다.

시가 자체에 있어서도 이를 추상적 내용의 성질과 구체적 형식의 특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내용으로 구분한 것은 직각적으로 시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니, 여기서는 순전히 형식적 방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 제1장: 조선시가의 발생시대(원시시대 — 신라초기 불교수입이전)
- 제2장: 향가시대(신라중기 불교수입이후 — 고려 초년)
- 제3장: 시가의 한역 시대(고려 초기 — 그 말기)
- 제4장: 구악 청산시대(이조 태조조 — 연산조)
- 제5장: 가사 송영시대(중종조 — 선조조 임진란 이전)
- 제6장: 시조문학 발휘시대(선조조 임진란 이후 — 숙종조)
- 제7장: 시가 찬집시대(경종조 — 정조조)
- 제8장: 창곡 왕성시대(순조조 — 순종조)(3~4쪽)

『사강』의 시대구분의 첫 번째 특징은 시가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인용문 원편의 시가사 시대 구분과 괄호 속의 역사적 시기 구분이 서로 대비되는 데서 뚜렷이 확인되는 바이다. “시대의 구분은 역사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입장에서 구분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문학적 사실과 병행한다 할 수 없는 것”(3쪽)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역사로부터 독립된 문학(혹은 시가)의 내적 역사를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형식”에 우선적 의의를 부여한 데 있다. 역사 일반과 구분되는 시가는 “추상적 내용”과 “구체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에서, 시대적 성격 파악에 더 용이한 “형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사강』의 입장이다. 형식적 특징의 우선적 고려는 바로 그 ‘구체성’ 때문이다.

『사강』이 이러한 방법론적 원칙을 천명하는 데서 출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서술이 ‘형식’이라는 기준의 일관된 적용은 아니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강』의 실제 서술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을 동시적으로 의식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향가·시조

·가사' 등 시가 장르의 형식적 특성이다. 둘째는, “시가의 한역 시대”가 환기하는 표기 문자의 문제이며, 셋째는 시가와 음악과의 관련성이다. 각각의 측면은 그 나름대로 시가사 서술에 관건이 될 만한 문제들임은 분명하지만, 『사강』이 이 셋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서술 방법을 개진하고 있지는 않다. 바로 이러한 비밀관성·비체계성이 『사강』에 대한 연구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사강』의 시가사 서술이 방법론적 일관성과 엄밀한 체계화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강』이 위의 세 가지 주요 측면들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은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기실 이는 한국문학사의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우회하기 힘든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시가 형식 문제는 시가를 시가이게끔 규정하는 내적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과 연결된다. 좀 더 나아가자면 문학의 내적 독자성을 보증하는 학문적 근거의 확립으로 이해 가능하다. 둘째의 표기 문자 문제는 한편으로 ‘조선(고유)문화-외래문화’의 구분과 관련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문학(문화)의 내부적 통합성·전체성 인식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셋째, 음악과의 관계 문제는 시가사의 예술적 존립 환경에 대한 이해 방식에 해당한다. 이것은 시가(사)와 주변 조건과의 관계를 통해 시가의 독자성과 가변성에 접근하도록 만들어 준다.

『사강』의 시가사 서술이 내포하는 문제 영역들은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도 있다. 문학 이외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문학다움의 내재성과 독자성, 문학의 존재 조건을 구성하는 문학 이외 영역들과 문학 사이의 관계 설정 방식, 문학(민족)의 조선적 특성과 외래문화 사이의 역사적 관계 인식 등 등이 그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강』의 학술사적 가치는 시가사의 통합적 체계화나 이론화의 완성도라는 각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한국문학의 역사적 체계화를 지향하는 문학사 서술에서 핵심적 과제가 되는 문제 영역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한 데서 찾아야 한다. 『사강』이 한국문학연구사에서 학술적 고전으로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단일한 논리로 쉽게 통합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세 영역의 과제를 문학사적 인식틀로서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작업의 성취 정도에 따라 그 연구사적 의의를 기늩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3

『사강』의 실제 서술 내용에서 이 세 영역의 상호 관련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대목은 ‘시가의 발생’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운제는 가요의 발생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라 인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意思感情을 율동적으로 발표할라 하는 욕망”(7쪽)의 공통성에서 찾는다. 다만 그 가요의 구별은 오직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어떠한 원시민족일지라도, 그 민족의 가요는 처음부터 부인치 못할 것이요, 다만 그것이 여하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를 논할 것이다.(7쪽)

시가를 시가일 수 있게 하는 요건이 “형식”이라면 이제 그 형식은 ‘조선 시가의 형식=조선적 형식’이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도술가>를 통해 “정제된 형식”의 등장을 추론하는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다. “정제된 형식”에 반대되는 자리엔 “무질서한 형식”이 있다. “조선 시가는 과거 긴 연월을 무질서한 형식으로 방황하다가 신라 초기에는 소박하나마 한 형식을 발견하여 그에 집중”하였으니, “도술가는 조선 성형시가의 모태”(30~31쪽)로 규정되었다. 『사강』의 조운제에게 “시가다운 시가”란 “정형적 시형을 구성한 시가”(24쪽)였다. 『사강』의 시가사는 곧 시가의 형식사라 할 수 있거니와, 그런 점에서 『사강』의 시가사 서술을 형식 ‘이전’과 ‘이후’로 양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사강』에서 주목하는 시가의 형식이란 문학의 문학다움이면서 동시에 조선 문학의 독자성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형식의 발견으로부터 고유문화와 외래문화라는 대립 구도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가) 시가발생시대를 朝鮮味의 처녀시대라 한다면 이 시대(향가시대—인용자)는 외래문화의 소화시대라 하고 싶은 시대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려 이조가 되면 미처 소화할 사이 없이 들어오는 외래문화에 고유문화는 전연 원기를 잃어 그 세력에 유린을 당하고 말았다.(32쪽)

(나) 신라문화의 結晶이라 할 향가문자도 고려조에 들어 와서는 그 사용이 점점 드물어져 거의 일반 인식 밖에 두게 되고 오로지 한문만을 써 나와 조선의 문학은 겨우 漢譯의 힘을 빌어 그 생명을 보전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고려 일대를 시가상에 있어 한역시대라 보련다.(88쪽)

(가)와 (나)는 각기 향가시대와 시가의 한역시대를 대상으로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대목이다. 향가 시대가 “외래문화의 소화시대”일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향가의 존재 때문이고 “한역시대”가 되면 “향가문자”조차도 차츰 소멸된다는 인식의 산물이다. 조선 시대가 되면 외래문화로서의 유교문화가 훨씬 더 압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조운제의 ‘형식’의 함의가 다시금 부각된다. 조선 시대를 품미한 유교문화를 외래문화의 압박으로 설명하면서, “조선문화는 또다시 모진 서리를 만났다. 문학도 겨우 그 형식적 방면만을 갖추고, 그 내용에 이르러서는 지나사상에 흠뻑 감염되고 말았”(160쪽)다고 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외래사상에 침윤된 ‘내용’과는 달리 “형식적 방면”에서 조선문화의 고유한 독자성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일 것 같으면 동일한 언어 범위 내에서는 일부러 특별한 시형을 찾을 필요가 없을 듯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되나,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시가만을 찾는다면 외국의 시형에 있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모방해 보았자 하등 필요가 없어지고 마나니, (중략) 이 점으로 보아 시조가 여하히 조선민족의 정신을 관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116쪽)

이 인용문은 시조 형식의 의의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조운제는 ‘형식’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내용과 형식을 구분한다. 그런 다음에 내용에 대한 형식의 우위를 강조한다. 이때의 형식이란 단순히 내용과 대립되는 의미로서의 형식이라기보다, 시가를 시가이게끔 만드는 내적 요건이자 특성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정신”과 같은, 문학을 넘어서 존재하는 초월적 대상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형식과 민족성(곧 조선민족의 고유성)의 상관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게 된다.⁵⁾

이제까지 시가의 ‘정형적 시형’이 상징하는 시가의 형식이 ‘고유문화-외래문화’의 대립 구도와 어떤 관련을 이루는지 살폈으니, 이어서 『사강』에서 시가(문학)와 非문학의 관계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논의할 차례이다.

시가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능으로 자연히 발생하여, 종교 사상이 발달하여 나가는 데 따라 그에 흡수되어, 종교의식에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볼 수 있으나, (중략) 이 종교적 가무는 어느 사이에 시가 그 자신에 대하여 일종 존재의 힘을 부여하고, 더욱더 그 발전을 촉진한 듯하나, 원래 종교와 시가는 각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시가는 자신으로도 능당히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19~20쪽)

이 대목은 “종교와 시가”라는 제목으로 발생기 시가의 존재 양상과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의 한 단락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사실은 종교가 시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측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시가는 독자적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종교의 영향이 심대하였다는 측면은 분명 인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가는 시가일 따름이라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고대 가요 관련 기록들에서 보이는 주술성에 대해, “시가에 존재의 힘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종교의 사상을 흡수하여, 그의 발전을 촉진한 데에 지나지 못한다.”(20쪽)라고 설명하였다.

종교가 시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것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시가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시가의 한 진보다. 그럼으로 조선시가는

5) 이 단락의 서술은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 양상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8, 124~125쪽에 의거하였다.

종교사상을 흡수한 후에는, 더욱이 시가에 존재의 힘을 부여하게 되고는, 상당히 발전하였다.”(21쪽) 이러한 시각 또한 ‘형식-내용’의 대비를 통해 ‘고유문화-외래문화’의 구도를 반영하는 방식과 동질적이다. 즉 종교의 영향은 시가의 내용에 있을 뿐이고 그 형식에서는 시가 나름의 특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각은 종교나 외래사상과는 구분되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가 형식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서술한 종교와 시각의 관계와 유사한 양상이 시가와 음악의 관계에서도 보인다. 종교에 비하면 음악적 측면은 시각과 훨씬 본질적인 관련을 이룬다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처럼 실제 『사강』의 서술에서도 그 비중이 적지 않다.

『사강』의 章 제목	음악 관련 節 제목
제1장 조선시가의 발생시대	제3절 종교와 시각
제2장 향가시대	제6절 삼국의 악제
제3장 시각의 한역 시대	제8절 고려의 속악
제4장 구악 청산시대	제5절 고려 악가의 정리
	제6절 舊樂尋察과 민가 수집
	제10절 연산조의 妓樂
제8장 창곡 왕성시대	제3절 가극의 발달
	제4절 창곡의 흥성
	제7절 창가의 대두와 신시의 萌動

가령 “향가시대”의 6절인 ‘삼국의 악제’에서, “말할 것도 없이 이 樂制는 歌詞의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제의 연구는 간접으로 가요의 연구라 하여도 가할 만치 중요한 것이다”(87쪽)라고 서술하였고, “고려 속악 중 歌詞有傳의 것”(153쪽)으로 고려 가요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사강』이 시각과 음악의 긴밀한 연관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과 음악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법은 없다. 단적으로 판소리의 발흥을 다룬 “가극의 발달” 부분에서, “가극의 발달은 극적 현상

으로는 주목할 점이 있지마는 시가 방면으로 본다면 결국 창곡의 一延長에 지나지 못하”(421쪽)라고 한 데서는 시가와 음악의 상관성을 강조하면서도 시가와 창곡의 상호 독자성을 뚜렷이 환기한다.

이렇게 볼 때 조운제가 『사강』에서 시가사의 체계화를 위해 세 가지 영역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가 형식의 독자성을 철저히 견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조선의 고유문화나 민족적 특성 등이 강조되는 방향 또한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측면은 언제나 시가 형식을 매개로 해서만 『사강』의 서술 속으로 들어온다. 훗날 조운제가 『국문학사』의 서술을 통해 민족정신의 생명체적 전체성을 방법론적 원칙으로 강조하고 그로 인해 『사강』에 비해 훨씬 체계성이 강화된 문학사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 반면에 시가의 형식론은 현저하게 간과·약화된 다. 『사강』이 지닌 가장 큰 학술사적 가치는 시가의 시가다움 즉 시가의 내적 형식을 통해, 더 나아가자면, 문학의 문학다움에 대한 질문과 탐색을 유지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강』과 『국문학사』 사이의 거리란 ‘형식과 생활’ 혹은 ‘문학과 민족’ 사이의 거리로 치환할 수도 있을 듯하다. ‘실증주의와 민족사관’이라는 통상적 대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이 중에 호올로 꾸준히 그 생명을 유지해야 금일에 이를수록 더욱더욱 그 광채를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시조 하나 뿐이라 할 것이다. (중략) 필경 근대 시조가 다른 어느 시가보다도 가장 조선민족의 국민성에 적합한 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15쪽)

위의 대목은 『사강』의 시가 형식론이 겨냥하는 궁극적 결론에 해당한다. 심지어 시조 이전의 모든 시형은 “시조 형식을 이루려는 준비에 지나지 못하였고, 성립된 후의 모든 시형은 시조의 발전적 형식이라 볼 수 있”(116쪽)

다고까지 단언한 터이다. 그러므로 시조는 조선 시가의 대표이자 시가사의 전후를 아우르는 연결 고리가 된다. 요컨대 시조의 형식 안에 시가 형식론의 근본 원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강』에서 조윤제는 자신이 이전에 진행한 연구에 근거해서⁶⁾ 시조를 “6구체가”(118쪽)라 규정한다. 이렇게 시조의 형식을 파악한 배경에는 향가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였다. 조윤제는 향가의 형식을 ① “전절 8구 후절 2구 합하여 10구로 된 것”, ② “전부 8구로 된 것”, ③ “전부 4구로 된 것”(37쪽)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①의 10구체 향가가 전절과 후절로 나뉜 것에 착목함으로써 향가의 형식 중에 6구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향가의 형식을 4구 6구 8구 10구의 순차로 발달하였다 보고자 하나, 6구체가 10구체가 원래 각각 落句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후세의 발달이라 할까 마침내 낙구가 떨어져 버려서 단순한 6구체 단순한 10구체가 되고 만 것일 줄 믿으나, 이것이 만일 주장이 된다면 정과정곡 10구체는 응당 향가 10구체에서 발달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 즉 眞句의 형식은 결론적으로 향가의 10구체에서 발달한 형식이라 하겠다.(101쪽)

위의 내용은 <정과정곡>의 형식적 특성이 10구체 향가와 동질적임에 기반해서 10구체 향가의 낙구가 탈락하여 <정과정곡>의 형태로 계승되었다는 추론을 담고 있다. 특히 “나는 향가의 형식을 4구 6구 8구 10구의 순차로 발달하였다 보고자” 한다는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강』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논리는 다른 논문에서 이미 개진하였다. 결론적으로 향가 형식의 순차적 발달을 도식화하면, ‘4 → 6 (4+2) → 8(6+2) → 10(8+2)’이었다.⁷⁾ 조윤제가 존재하지도 않는 6구체 향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절과 후절로의 분절성 개념을 도입하였고, <정과정곡>의 형식이 10구체를 계승한 결과임을 들어 낙구가 탈락된 이후의

6) 시조의 자수고(1930)와 시가의 원시형(1933)이다.

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류준필, 앞의 논문, 26~43쪽.

“단순한 10구체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추론에 기대어 낙구를 포함한 6구체 향가에서 낙구가 탈락한 형태로 등장한 것이 6구체 형식의 시조라는 결론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⁸⁾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음사>를 6구체의 또 다른 사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19쪽)

이상의 논리를 통해 향가에서 시조로 이어지는 형식의 시가사적 구도가 『사강』에서 일단 정립되었다. 그런데 조선문학을 대표하는 시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녹록치 않은 가사의 형식론도 구비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시조와는 달리 가사의 형식을 시조를 설명하는 형식론의 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조운제는 『사강』에서 일단 단가와 장가를 구분하고 장가의 변천 과정 속에서 가사 형식의 성립을 다루고자 하였다.

各節에 分段할 수 있는 것	1. 各節에 落句가 붙은 것
	2. 各節에 후렴구가 붙은 것
	3. 各節에 낙구도 후렴구도 붙지 않는 것
各節에 分段할 수 없는 것	歌辭體 詩歌

위의 표는 『사강』에서 제시한 장가의 형식적 분류이다(240~241쪽). 조운제에 따르면 시가는 단가에서 장가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장가의 형식 변천

8) 보다 자세한 설명은 조운제, 시가의 원시형,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43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앞에서 향가형식으로 4구체가 8구체가 10구체가 삼중으로 인종하고 8구체는 4구체에서 발달한 것이라고까지 말하여 두었으나, 4구체가 8구체로 성립하여 가는 데는 단번에 된 것이 아니고, 4구만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할 때에 그 넘치는 감정을 무슨 형식으로라도 그 끝에 첨가하였으리라고 상상된다. 이 첨가된 부분은 발생의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의 호소였을지도 모르나, 차차 그 내용을 釀造하였을 때는, 조선 시가가 일반의 통일된 의미를 표현하자면 최단 2구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2구인 듯한데(중략) 이것이 만일 공상이 아니라면 마치 10구체에 前8구가 전절이 되고, 後2구가 후절이 되는 것과 같이, 舊4구는 전절이 되고 후2구는 그에 대한 후절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는가 한다.//그러하여 전후 양절이 합한 6구체가, 4구체와 8구체가 도중에 존재하여 얼마간 4구만의 불만족을 보충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복잡한 내용을 후답하지 못할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드디어 전술한 半折性을 발휘하여 후절 2구에 다시 2구가 붙어 8구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단가의 형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가 형식을 예비하는 단가는 ‘낙구가 있는 것’과 ‘낙구가 없는 것’으로 나뉜다. 낙구의 유무에 집착하는 것은 향가의 형식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어서 후렴구가 있는 장가를 고려하여 ‘낙구 혹은 매김소리’가 후렴구로 변모하는 과정을 가설적으로 제시하고, 후렴구 전후의 단가가 통합되어 장가가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 경로가 여러 단가가 결합하는 방식이라면, 이외에도 하나의 단가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장가의 길이를 구비하는 경로도 상정하였다(240~244쪽).

가사 형식의 발생에 대한 『사강』의 가설은 위태롭게 동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향가의 구체 형식으로 환원되지 않을뿐더러 “各節에分段할 수 없는” 형태로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가사는 수적인 句 형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가였다. 자칫 가사라는 형식은 『사강』이 어렵사리 구축한 시가사의 형식적 체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을 만큼 난감한 존재였다. 『사강』에서는 임시적으로 봉합해 놓은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시가의 시가다움을 그 형식적 명징성에서 확인하는 『사강』의 시가 형식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시 봉합은 오래 가기 힘들었다. 결국 조운제는 가사를 시가의 범주로부터 몰아내는 길을 선택한다.⁹⁾ 가사의 형식에 대한 조운제의 고민이 깊을수록 그만큼 시가의 형식 체계에 조운제가 집착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훗날 ‘시가·가사·소설·회곡·한문’의 다섯으로 국문학의 장르를 구분하는 데서 시가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¹⁰⁾

가사를 시가의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 조운제의 시가형식론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렇지만 가사가 시가 장르에 속하지 않는다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의 장르적 특성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조운제 이후에 오래도록 한국문학연구의 핵심 쟁점이었던 장르론의 체계 정립 문제도 따지고 보면

9) 조운제, 가사문학론, 『조선시가의 연구』, 114~116쪽.

10) 조운제, 『국문학개설』, 3~4쪽의 ‘목차’를 참조할 것.

『사강』의 시가 형식론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강』의 학술사적 의의와 그 영향력은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¹¹⁾ 도 남학이 다시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 지금이다.

11) 『사강』과 『국문학사』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는 관행에 반대하며 『사강』과 『국문학사』의 연속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도 그간 더러 있었다. 『사강』의 의의를 소홀히 하고 그 성격을 단 순화하는 논의에 거리를 둔 것이지만 결국은 『국문학사』의 문학사관이 『사강』에까지 소급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강』이 시가의 형식론을 중심에 두고 서술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문학사』보다는 『사강』 이전에 조윤제가 진행한 연구와의 관련성이 우선적이다. 조윤제의 시가 형식론과 『사강』의 집필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1929년부터 벌어졌던 小倉進平과 土田杏村 사이의 향가 형식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일 무렵에 趙潤濟는 이 과제를 자신이 맡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이로 인해 『사강』의 집필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강』은 『국문학사』보다는 조윤제 자신이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강』 이전의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사상 연구 1』, 일지사, 1984.

2. 논문

김명호, 「도남 조윤제의 국문학연구 방법론」, 서울대 석사논문, 1977, 1~78쪽.

_____, 「陶南의 생애와 학문-민족에 살고 민족에 죽다(生於民族 死於民族)」,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23~68쪽.

김태환, 「도남 시가사의 자연미 발견론 비판」, 『도남학보』 20, 도남학회, 2004, 127~161쪽.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 양상과 특성」, 서울대 박사논문, 1998, 1~269쪽.

_____, 「土田杏村·小倉進平의 향가형식논쟁과 조윤제의 시가형식론」, 『한국학보』 25권4호, 1999, 152~175쪽.

성기욱, 「한국 시가 연구와 陶南」,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119~165쪽.

이우성, 「도남 국문학에 있어서의 ‘민족사관’의 전개」, 『성대문학』 10, 성균어문학회, 1964, 37~45쪽.

조동일, 「조윤제의 민족사관과 문학의 유기체적 전체성」, 『도남학보』 11, 도남학회, 1988, 39~52쪽.

최진원, 「도남 국문학의 개관」, 『성대문학』 10, 성균어문학회, 1964, 46~52쪽.

A reappraisal of Academic significance of *History of Korean poetry* in
premodern period by Jo Yunjae

Ryu, Junpil

The actual writing of Jo Yunjae's *Essential History of Korean poetry* in premodern period was performed with the consciousness of three aspects as below; Firstly, the formal characteristic of poetry genre, Secondly, the relationship of indigenous and foreign cultures, and thirdly, the connection between poetry and music. Those three issues are fatal for a historiography of poetry, yet Jo Yunjae hardly developed the systematic frame to cover those three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reason that *Essential History of Korean poetry* in premodern period has been somewhat underestimated as an inconsistent research. However, the consciousness itself for basic factors to foreground a poetry historiography is worthy of reconsideration. Jo Yunjae raised unavoidable issues for anyone to map out a history of Korean poetry, and it is important enough as it is. Taking the circumstances where next generation's scholars had been trying to solve problems into consideration, we could guess at his strong influence over academic field of Korean literary history.

keyword : Jo Yunjae, formal characteristic of poetry genre, the relationship of indigenous and foreign cultures, connection between poetry and music, systematic frame for poetic history